문무백관이 읍(揖)하고 칠보로 장식하다

사찰벽화 명작순례

⑩ 순천 송광사 관음전의 문무백관도와 칠보벽화



순천 송광사 관음전 빗반자천정의 칠보문 벽화.



순천 송광사 관음전 문무백관 벽화(정1품).

관음전은 왕의 장수 빌던 성수전

숭유억불의 조선 사회에서도 왕실의 헌향은 끊이지 않았다. 왕실의 장수와 자손 번성을 위해, 왕릉이나 태실 수호를 위해 왕실 발원 사찰이나 법당이 세워졌다. 왕실의 발원으로 세운 법당을 '원당(願堂)'이라 부른다. 말 그대로 왕실의 바람이 이뤄지도록 기도하던 법당이다.

기록 등으로 전하는 조선 왕실의 원당은 대략 250기 정도로 알려진다. 그중 대구 파계사 기영각이나 의성 고운사 연수전(2025년 화재로 전소), 순천 선암사 장경각, 순천 송광사 관음전 등은 현존하는 왕실 원당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그 원당들은 한결같이 왕자 탄생과 왕실의 장수, 기복을 발원하던 법당이었다.

특히 고운사 연수전, 송광사 관음전은 왕의 장수를 축원한 대표적인 왕실 원당 건축으로서 주목을 끈다. 두 곳 모두 고종의 기로소(耆老所) 입소를 기념해 1903년(송광사 관음전)과 1904년(고운사 연수전)에 세운 매우 드문 건축이기 때문이다.

'기로소'는 요즈음으로 치면 일종의 경로당이다. 그런데 조선시대 기로소는 왕이 참가하는 일종의 국가 원로 기관이었다. 참가자격도 엄격했다. 70세를 넘긴 정2품 이상의 문관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왕의 경우 70세를 넘기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환갑이 되는 60세에 입소 자격을 부여했다. 조선 왕의 평균 수명이 48세였던 사실은 왕의 기로소 입소 특별우대의 배경을 짐작하게 한다.

조선의 역대 27명의 왕 중 환갑을 넘긴 왕은 태조(74), 숙종(60), 영조(83), 고종(67) 등 6명뿐이었다. 국가 공식 기록상 기로전에 입소한 왕은 3명밖에 없다. 숙종, 영조, 고종의 세 왕이 그 주인공이다. 그런데 세 분 모두 규정을 어기고 60세 되기 전에 입소했다. 숙종은 59세에, 영조와 고종은 60을 바라보는 나이 '성수망육(聖壽望六)'이라 우기며 51세에 들어갔다.

조선왕조실록 〈영조실록〉 19년(1743년) 1월 11일 기록에 빨리 기로소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영조의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나는 다른 소원은 없다. 오직 세 가지만 있을 뿐이다. 하나는 조정에 붕당이 없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백성이 무사한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기사(기로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기로소에 한시바삐 들어가는 것이 왕의 소원이라는데 누가 가로막겠는가? 왕실 원당에서는 왕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해 왕의 장수와 왕실의 수복강녕을 축원하는 전각을 지었다. 숙종은 1719년에 '영수각'을, 영조는 1749년에 '봉안각'을, 고종은 1903년에 '연수전'을 세웠다. 경이로운 점은 그 세 기념 건물이 관례에 따라 의성 고운사 한곳에 모두 지어졌다는 점이다.

고운사 연수전과 송광사 관음전은 왕의 장수 축원한 대표적 왕실 원당 성수전, 고종 기로전 입소 기념전각 독특한 문무백관 배례도와 칠보벽화

고운사 연수전은 조선 왕실의 기로전 역사를 실증해 준다. 연수전은 솟을삼문과 어첩 보관용 감실을 갖춘 불교 속 유교 건축이었다. 하지만 2025년 경북 의성 산불로 안타깝게 소실했다. 고종은 51세 되던 해인 1902년에 기로소에 입소했다. 그 기념으로 두 곳의 사찰에 황제의 장수를 축원하는 원당을 지었다. 한 곳이 고운사 연수전이고, 또 한 곳이 순천 송광사 성수전이다.

'성수전(聖壽殿)'은 말 그대로 왕의 장수를 빌기 위해 왕실의 내탕금으로 지은 궁궐건축 형식의 원당이었다. 전각에 고종 황제의 상징인 전패를 모셨다. 성수전 앞에 관음전이 있었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1957년 관음전이 무너질 위험 지경에 처했다. 관음보살을 성수전으로 옮기고, 전각 편액을 관음전으로 바꿔 달았다. 현재의 송광사 관음전이 그때의 성수전 원당 건물이다. 관음전의 내력에 성수전의 역사가 스며 있다. 송광사 관음전은 조선 왕의 기로소 입소를 실증하는 현존하는 유일한 전각이다.

문무백관 14명이 읍하는 벽화

송광사 관음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건물이다. 건물 내부 어간 영역에 'ㅠ' 형태의 별도의 감실이 마련돼 있어 독특하다. 선암사 원통전이나 장경각에서 이와 유사한 구조를 볼 수 있다. 전각 내부에 별도의 내원을 갖춘 구조다. 내원에는 성수전 왕실 원당이었을 때는 왕의 상징인 전패를 모셨지만, 지금은 관세음보살을 봉안하고 있다. 관음전에는 왕의 장수를 축원하던 왕실 원당의 성격이 여전히 곳곳에서 드러난다. 특히 벽화에서 원당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관음전 벽화는 1903년 건축 당시의 원형 그대로다. 개채의 흔적이 없다. 20세기 초 근대기의 단청장엄 채색 원리가 온전하게 간직돼 있다. 〈성수전 창건기〉에 의하면, 벽화는 1902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 달 만에 조성했다. 바탕초는 보응당 문성이 출초하고, 채색은 묘영과 천희가 담당했다.

보응당 문성의 이름이 눈길을 끈다. 문성은 마곡사를 본거지로 활동한 경산화소 불모들의 계보 중심에 자리한다. 금호당 약효-보응당 문성-금용당 일섭-해봉당 석정으로 이어지는 불모의 맥에서 사자 전승의 끈을 이었다.

관음전 벽화의 소재는 통상적인 법당장엄 소재들과는 사뭇 다르다.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세 가지 소재와 장면이 인상적이다. 첫째, 고관대작 문무백관들의 문안 인사 장면. 둘째, 화려한 칠보장엄 벽화. 셋째, 민화풍의 다양한 화조도와 화훼도. 이 세 가지 특징은 송광사 관음전 벽화가 간직한 궁궐벽화의 장엄 특성을 압축적으로 대변한다.

불전 건물 내부에 문무백관들이 도열해 있는 장면은 어색하면서도 진귀하다. 유교 성리학적 고관들이 조복 차림으로 불교 보살에 배례 올리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음보살을 봉안한 북쪽 감실을 중심으로 북·동·서 삼면에 고관대작의 신하들이 공손히 허리 숙여 읍(揖)하고 있다. '읍하다'는 단어는 두 손을 맞잡고 허리 굽혀 지극한 공손의 예를 올리는 행동을 말한다.

읍을 올리고 있는 신하는 모두 14명이다. 문무백관이라 표현했지만 사실은 모두 당대 최고위직의 문관들이다. 1902년 51세 고종과 함께 기로소에 입소한 70세 이상 고령의 백관들로서 정1품은 북면 좌우에 각 3명씩 6명, 종1품은 동서면 각 2명씩 4명, 정2품은 동서면 각 2명씩 4명, 총 14명의 문관이 도열하여 예를 올리고 있다. 정1품은 붉은색 조복에 금관 관모를 쓰고 상아로 만든 홀을 두 손에 받쳐 들었다. 종1품과 정2품은 초록색 계열의 조복에 사모관대 차림을 하여 품계에 따른 관복 차림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감실 중앙의 관음보살 좌우 벽면을 유심히 보면 해와 달 벽화가 보인다. 해와 달 벽화는 각각 고종과 명성 황후를 상징한다. 해와 달 벽화 자체가 왕권을 상징하는 일월오봉도와 상통한다. 원래는 중앙에 왕의 상징인 전패를 두고, 일월오봉도 병풍격인 일월도를 좌우에 펼쳐 둠으로써 백관들이 중앙을 향해 극진한 예를 올리고 있는 장면을 자연스레 구성했던 것이다.

앞서 관음전 벽화의 세 번째 특징으로 언급한 민화풍의 풍부한 화훼도와 화조도 벽화 역시 왕권을 둘러싼 병풍 성격으로 조영된 것이다. 갖은 꽃으로 왕이 있는 공간을 격식 있게 장식한 의미다. 동시에 화훼도 속 모란이나 포도, 석류, 다람쥐의 표현 등엔 자손 번창, 부귀, 화목 등의 왕실 기복의 의미도 내밀히 갈무리돼 있다. 조복을 갖춘 신하들이 좌우에 도열하여 공손히 예를 올리고 있는 사찰벽화는 송광사 관음전 외에도 서너 곳이 더 있다. 선암사 장경각, 통영 안정사 칠성전, 제천 신륵사 극락전 등에서도 유사한 장면들을 살펴볼 수 있다. 그 세 곳에서도 조복 차림의 문무백관들과 함께 소상팔경도(선암사), 늘어선 연꽃 화병(안정사), 모란 병풍도(신륵사) 등을 함께 표현하고 있어 유가적 벽화의 성격과 장엄 원리를 일관되게 보여준다.

천정의 칠보문, 수복강녕의 뜻

송광사 관음전 벽화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별한 소재는 칠보장엄이다. 칠보(七寶)는 금, 은, 유리, 진주, 수정, 호박, 마노의 일곱 가지 광물성 보물을 말한다. 하지만 길상을 표현하는 단청장엄에서는 원형 고리 모양의 전보, 마름모꼴을 이은 방승보, 문서 모양을 교차한 서보, 뿔 모양을 결합한 서각보, 특경 악기 문양을 겹친 특경보를 비롯해 부채, 파초잎, 호리병 형상 등을 연속 결합한 길상 상징의 추상적 도안 일체를 칠보문으로 통칭하기도 한다.

관음전에 사용한 칠보문은 네 종류다. 전보, 서보, 특경보, 호리병 문양 등 네 가지 칠보문만 사용했다. 문양마다 같은 기하학적 문양을 두 개 이상의 고리로 이음으로써 부귀가 끊이지 않고(전보), 학문 성취가 나날이 깊어지고(서보), 귀한 경사가 이어지며(특경보), 신선의 선약으로 치료해 주길(호리병) 바라는 길상의 뜻이 담겨 있다.

칠보문은 법당 사방 가장자리에 시설한 빗반자천정에 빼곡히 장식해 뒀다. 빗반자천정의 사방 포벽 19칸에 온갖 길상 문양의 향연을 펼쳤다. 오색찬란하게 너울대는 칠보문을 반복적으로 무려 46점이나 그려 넣었다. 오채 찬란하게 연속하는 칠보문과 박쥐 문양, 석류, 불수감, 천도, 나리꽃, 물고기 등 그 형상은 천차만별이지만 문양이 간직한 뜻은 한결같다. '목숨 수(壽), 복 복(福)'. 이 생명, 고귀하게 영겁으로 이어지기를. 모든 칠보문의 길상은 '수복'으로 귀결한다. 송광사 관음전의 빗반자천정은 수복강녕(壽福康寧)의 바다다.



노재학 작가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걷는 순간이 곧 수행이다

발은 수행의 첫걸음, 땅과 연결된 걸음은
곧 마음의 고요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길도 청정하다."
어싱(접지) 슈즈 리센스 블랙
Earthing Shoes Re-sense



재질 : 인조가죽

◆ 주요 특징
- 두 개의 끈 구멍, 단순함 속의 무소유
- 제로 드롭(3mm) 밑창,
  땅과 하나 되는 균형
- 클래식 블랙, 흔들리지 않는 중심

특판가 65,000원
※ 사은품 : 2켤레 이상 구매시
'어싱 전용 양말' 증정



홍재화 대표

모바일 구매 QR

"몸과 마음이 고요하면, 걸음은 곧 선정이다."
어싱(접지) 슈즈 와이드 베이지
Earthing Shoes Wide



재질 : 인조가죽

◆ 주요 특징
- 발가락을 옥죄지 않는 와이드 설계
- 인조가죽의 따뜻한 휴식
- 어싱(Earthing) 설계, 몸과 땅의 합일

특판가 65,000원
※ 사은품 : 2켤레 이상 구매시
'어싱 전용 양말' 증정

제조원 필맥스
주문은 마하몰! 1688-9099